

구약논단

제17권 4호(통권 42집) 2011년 12월 31일

- 소 형근(남서울대) “너는 돌아와 다시 아웨의 말씀을 청종하고”(신 30: 8)
-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심(שוב)에 대한 고찰 105
이 논문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심’(히브리어 ‘슈브’)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요청을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를 중심으로 다루며,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의 회심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하나님의 강제적 회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밝힌다.
- So, Hyeong-Geun “And thou dost turn back, and hast hearkened to the voice of Jehovah”(Deut 30:8) -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Israel in the Old Testament 105

“너는 돌아와 다시 야웨의 말씀을 청종하고”
(신 30: 8) -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심(גיב שׁוּב)에 대한 고찰

소형근 | 남서울대

1. 서론

‘중생’(重生)¹⁾은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²⁾ 그리고 이러한 중생은 ‘회심’(conversion) 사건을 유발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이란 하나님을 떠났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지

* 이 논문은 2011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로이드 존스(L. Jones)는 중생과 회심을 구별하면서 중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면 회심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며, 중생이 그 원인이라면 회심은 그 결과의 사건이라고 보았다(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 - 교리강좌 시리즈 2』 (임 범진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133쪽). 그러나 구약성서에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없고(구약성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생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오직 ‘회심’만 있다. 회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인데 이 단어는 ‘칼’ (Qal) 형태로도 사용되지만 사역형인 ‘히필’ (Hiphil) 형태로도 360회 이상 사용되고 있다. 구약적인 회심은 로이드 존스의 주장처럼 “우리(인간)가 하는 것”만은 아니다. 히브리어 ‘슈브’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언약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패역한 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슈브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드는 슈브다.

2) 이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제6조 1항에 나온 ‘중생’에 대한 정의(定義)다.

못하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회심’과 관련된 구약성서의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슈브’(שׁוּב)이다. 이 ‘슈브’는 구약성서의 중심사상 중 하나로 구약성서의 오경³⁾(특히 신명기)뿐 아니라,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지혜문학⁴⁾ 전반에서 사용되는 두드러진 주제다. 본 논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에 대한 요청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약성서 신명기와 역사서(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포로 이전 예언서와 포로기와 포로 이후 예언서)를 중심으로 히브리어 ‘슈브’에 대한 쓰임을 살펴보도록 한다.

2. 회심의 개념과 용례

히브리어 ‘슈브’(שׁוּב)에 해당되는 희랍어 단어는 ‘에피스트레페인’(επιστρέφειν)인데 뜻은 ‘어떤 곳으로 되돌아가(오)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의미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의미로도 쓰이고(삿 8: 13), 혹은 특정인에게 나아가는 모습으로도 사용되지만(왕상 12: 27), 이 단어의 독특한 사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거나(렘 3: 14; 수 24: 20),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사 44: 22; 51: 11; 55: 7)을 의미할 때 사용되며,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도 이 슈브 단어가 사용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다고 해서 변덕스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변

함없는 구원 역사의 일부로 해석된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옴, 즉, 회심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 이상의 것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향하는 구체적 변화다. 이 회심이라는 개념은 구약성서 안에서 ‘마음의 할레’(신 30: 6; 삼상 10: 9[‘changed heart’], 시 51: 10 [‘pure heart’])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개념을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에서(겔 37: 1-14),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렘 24: 7; 겔 11: 19; 겔 36: 26-27),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언급에서(겔 36: 24, 25)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 패역한 인간이 그 죄에 대해 참회하며 회복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이러한 모티브는 새 언약(렘 31: 31-34; 겔 34: 25), 새 예루살렘(슌 14: 10-16)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사 65: 17)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또한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슈브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수 22: 16).

구약성서에서 회심의 대상은 한 개인 뿐만 아니라 민족(혹은 국가) 전체에 해당된다. 디트리히(E. K. Dietrich)는 이 회심의 개념이 바벨론 포로와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생겨났다고 본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슈브가 포로 이후 본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⁵⁾ 그러나 앞서 언급한 본문들이 포로 이후 본문에 속한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역사성과 제사의식의 고대성을 감안한다면 슈브의 개념을 후대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슈브의 필요성에 근거가 되는 죄에 대한 문제가 원복음이라 할 수 있는 창 3장 1-19절(J 문서)⁶⁾에서, 그리고 자신의 갱신(?)을 위한 다윗의 참회의 시(시 51: 10)에서 또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약성서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개인적 슈브의 필요성이 존재했으며, 이후 8세기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민족적, 국가적 위기를 통해 이 슈브가 더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이키다’(회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슈브는 구약성서 안에서 1060회 정도

3) 히브리어 슈브가 사경(tetrateuch)에서 130여 차례나 사용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심’과 관련해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 성경에서 주목할만한 본문은 민 32장 15절로 “이스라엘이 아웨를 돌이켜 떠나면(שׁוּב) 테수분) 아웨께서 백성을 광야에 다시 버리실 것이며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이것은 너희 때문인 줄 알라고 말씀한다.” 파브리(H.-J. Fabry)에 의하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웨를 떠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돌이키지 못함에 대한 민 32장 15절은 포로 이후의 주제로 제사문서의 편집자(R²)의 것으로 돌린다. 참고, H.-J. Fabry, art. שׁוּב (ThWAT VII), (Stuttgart: Kohlhammer, 1993), 1138쪽.

4) 구약성서 지혜문학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에 대한 외침이 없이 다만 개인적 ‘회심’에만 집중되어 있다. 잠언에는 인간의 행동이나 운명과 일치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나타낼 때 히브리어 슈브를 사용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שׁוּב; 야쉬브)”(잠 12: 14).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결과로도 사용된다. “[...] 그(= 하나님)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שׁוּב; 헤쉬브)”(잠 24: 12). 그러나 율기에는 오히려 자신의 친구들의 곱해된 생각을 뒤집을 목적으로 슈브를 외치며(욘 6: 29), 특별히 인생의 무력감을 노래할 때도 이 슈브가 사용된다(욘 7: 10; 10: 21; 16: 22). 참고, H. M. Wahl, *Der gerechte Schöpfer. Eine redakt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r Elihu-Reden – Hiob 32–37* (BZAW 207), (Berlin: de Gruyter, 1993), 107쪽.

5) E. K. Dietrich, *Die Umkehr (Bekehrung und Busse) im Alten Testament und im Judentum bei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neutestamentlichen Zeit*, (Stuttgart: Kohlhammer, 1936), 316–347쪽.

6) R. E. 프리드만,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이 사야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2010), 333쪽.

사용되었으며, 동사의 *qal* 형태(683회)와 *hiphil* 형태(360회)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할러데이(W. L. Holladay)는 슈브가 구약성서 안에서 ‘언약적 용법’으로 164회나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슈브는 야웨와 이스라엘의 언약이라는 특별한 본문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한다.⁷⁾ 이 슈브의 의미인 ‘돌이키다’라는 말에는 특정한 곳에서 떠남을 의미한다. 즉, 히브리어 슈브가 구약성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3.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심

1) 신명기에서 회심

“야웨께 돌아오라”는 이스라엘의 회심 주제는 신명기의 본래 주제는 아니다.⁸⁾ 히브리어 슈브가 신명기에서 신학적 맥락 가운데 사용되긴 하지만(신 13: 18[한글성경 17절]⁹⁾; 17: 16¹⁰⁾; 23: 15[14절]¹¹⁾; 28: 60¹²⁾, 69¹³⁾), 신명기에서 슈브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회심과는 동떨어진 용도로 쓰이고 있다. 다만 포로기로 추정되는 신명기 본문에서만 이스라엘의 회개(to repent)와 돌이킴(to return)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두 번 사용되고 있다.¹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7) W. L. Holladay, *The Root šubh in the Old Testa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Usages in Covenantal Contexts*, (Leiden: Brill, 1958), 169–191쪽.
 8) H.-J. Fabry, *윳글*, 1153쪽; 신명기의 역사의 기원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한 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0–30쪽.
 9) 신 13장 18절(한글성경 17절)은 이스라엘이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않을 경우 야웨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נָשַׁח; 야슈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한다.
 10) 신 17장 16절은 병마를 얻으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לֹא תָשׁוּב; 로 야슈브)는 왕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다.
 11) 신 23장 15절(한글성경 14절)은 이스라엘이 진영을 거룩히 할 경우 야웨께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실 것(נָשַׁח; 샹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신 28장 60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내용으로 윳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야웨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에게로 가져오게(נָשַׁח; 헤슈브) 할 것이라고 말한다.
 13) 신 28장 6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내용으로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어갈 것(נָשַׁח; 하슈베카)임을 말하고 있다.
 14) U. Rüt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184쪽.

주제는 신 4장 29-31절과 신 30장 1-10절에 나오며, 이 두 본문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짐과 포로 이후를 암시하고 있다(“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 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신 4: 3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신 30: 3]).¹⁵⁾ 이 두 본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선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심’의 요청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회심’했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신 4장 30절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야웨께 돌아올 것(נָשַׁח; 샹브타)이라는 판단 하에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며, 신 30장 1절 이하의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성을 가져다주실 것이라는 예언자적 전승에서 나온 확신으로 조벨(K. Zobel)은 본다.¹⁶⁾ 주전 8세기 예언자 호세아는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같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호 5: 6)며 이스라엘의 풍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그러나 신 4장 29절은 이 재앙의 선언을 반전시킨다. 만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신 4: 30)이 야웨께 돌아와서 야웨의 말씀에 청종하면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다(신 4: 29b). 슈미트(W. H. Schmidt)는 신 4장 29절 본문이 램 29장 13절(“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¹⁷⁾ 신명기에서 말하는 회심, 곧 히브리어 슈브는 야웨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신 30: 2, 8). 그러나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스스로 회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야웨의 자비하심으로만 회심은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신 4: 31). 즉, 이스라엘 모든 집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렘 9: 26) 야웨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 주실 것이며(신 30: 6a) 야웨의 할례 의식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

15) 크나프는 신 4장 29–30절과 신 30장 1–10절이 동일 저자로부터 나온 본문이라고 본다. D. Knapp, *Deuteronomium 4: Literarische Analyse und theologische Interpretation* (GTA 3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91–97, 154–157쪽.
 16) K. Zobel, *Prophetie und Deuteronomium: Die Rezeption prophetischer Theologie durch das Deuteronomium* (BZAW 199), (Berlin: de Gruyter, 1992), 61–62, 99–102쪽.
 17) W. H. Schmidt, “Suchet den Herrn, so werdet ihr leben,” *Exegetische Notizen zum Thema ‘Gott suchen’ in der Prophetie*, *Ex orbe religionum; FS. G. Widengren,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Numen Sup 21–22*, (Leiden: Brill, 1972), 137–138쪽.

님 야웨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신 30: 6).¹⁸⁾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실 것이다. 신 30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이제 막바지로 보이며(신 30: 3) 이스라엘이 야웨의 심판(30: 1)에 대해 야웨께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웨의 말씀에 청종하면(30: 2)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다(10절). 따라서 신 30장 1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참고, 호 5: 4; 7: 10; 렘 4: 22; 13: 23)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만 회개와 돌이킴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예언자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렘 24: 7; 31: 31-34; 겔 36: 26-27). 신명기¹⁹⁾에 나타난 히브리어 슈브는 포로 이전 예언자들의 신학적 사상들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면서 포로민들을 겨냥한 미래적 선포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

2) 역사서에서 회심

(1) 신명기 역사서

구약성서 신명기 역사서²⁰⁾에서 슈브에 대한 쓰임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위한 경고 메시지이면서 최후통첩으로 보인다.²¹⁾ 신명기 역사서에서 이 슈브는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²²⁾ 예를 들면, 사무엘(삼상 7: 3), 솔로몬(왕상 8: 33-48), 요시야(왕하 23: 25)가 이에 해당된다.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

18) 루터스뵈르덴은 신 6장 5절("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의 요구가 신 30장 6b절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U. Rütterswörden, *위글*, 184쪽.

19) 신명기의 시기에 대한 논쟁은 다양하겠으나 페이올라(T. Veijola)의 입장을 따른다. 참고, T. Veijola,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1-16,17* (ATD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2-6쪽.

20) 신명기 역사서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이 은우,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67-86쪽.

21) 신명기 역사서에서 히브리어 슈브는 전체 280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슈브의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한다. 참고, J. A. Soggin, art. שׁוּב (THAT I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4), 885쪽.

22)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확인시키고 있다(느 1: 9).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임했음을 전제하고 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기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שוב)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חשב) 하세(보)탐) 하옵소서"(33-34절). 이것은 신명기 역사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바벨론 포로)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명기 역사서에서 슈브를 선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자의식(consciousness)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약속의 땅 정착과 정착 이후 고대 이스라엘의 삶을 알려주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무려 65회나 사용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회심의 의미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이 야웨를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주에서만 이 슈브가 사용되고 있다(수 22: 16, 18, 23, 29; 사 8: 33). 신명기 역사가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와 종교적 범죄 사실을 알리려는데 주력하고 있음이 역력하다.²³⁾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를 여는 사무엘서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98회 사용되는데 예언자이자,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촉구로 시작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웨께 돌아오려거든(שוב) 야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웨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삼상 7: 3). 사무엘의 이러한 촉구가 있을 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돌이켜서(שוב) 하나님을 좇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삼상 15: 11). 이처럼 사무엘서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회심 촉구와 이스라엘 왕 사울의 회심치 못함에 대한 대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신명기 역사가는 회심에 대한 주제를 이 두 인물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23) 사사기는 히브리어 슈브를 사용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는 보도만 나온다(사 8: 33).

열왕기 본문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솔로몬의 성전봉헌식 기도에서 히브리 어 슈브의 쓰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²⁴⁾ 왕상 8장 33절과 왕상 8장 47-48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갇음을 전제하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회심(שוב 슈브)하면 열조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왕상 9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면서 슈브를 사용하는데, 이 슈브가 언약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돌이켜(וּשְׁבוּ אֱלֹהֵינוּ) 쇼브 테슈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라는 말씀에 사용되고 있다(6-7절). 117회나 슈브를 사용하고 있는 열왕기 본문에서 슈브가 긍정적으로²⁵⁾ 사용된 유일하게 경우는 요시아의 예(例)이다.

וְכַמְנוּהוּ לֹא־תָנִיחַ לְפָנָיו מֶלֶךְ אֱשֶׁר־שָׁב אֶל־יְהוָה בְּכָל־לִבָּבוֹ
וּבְכָל־נַפְשׁוֹ וּבְכָל־מַאֲדוֹ כְּכֹל חוֹמַת מוֹשֶׁה וְאֶחָדָיו לֹא־קָם כְּמֹהוֹ: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웨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 25).

신명기 역사가에 의하면 요시아 왕만이 야웨께로 돌이킨 유일한 슈브의 왕이었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슈브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이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다. 그런데 위의 본문 살피기를 통해 신명기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왔다(שוב 슈브)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았다. 신명기 역사서에는 사무엘(삼상 7: 3), 솔로몬(왕상 8: 33-48), 요시아(왕하 23: 25)를 통해 슈브가 강조되고 있지만 신명기 역사서의 슈브의 용례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 이것은 신명기 역사가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²⁶⁾

24) H. W. 볼프, 「구약성서중심사상」 (문 회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64-165쪽.
25) 여기서 슈브의 긍정적 사용이란 야웨께로 회심을 말한다.
26) 노트는 신명기 역사가가 대략 주전 550년경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에서 형성된 것으로 본다.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57).

(2)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²⁷⁾에서 슈브 사용은 신명기 역사서와 유사하다. 역대기 역사서²⁸⁾는 야웨를 떠나거나(대하 7: 19), 야웨께 돌아가는 것(대하 6: 38; 왕상 8: 48; 대하 15: 4; 30: 6, 9; 36: 13; 느 1: 9; 대하 6: 24, 37; 왕상 8: 33, 47)에 대해 두 가지 모두 사용된다. 야웨께 돌아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역대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길’(대하 7: 14)과 ‘죄’(대하 6: 26)와 ‘악행’(느 9: 35)으로부터 떠나는 백성의 회심에 대한 의미(대하 19: 4; 24: 19; 느 9: 26, 29)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야웨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다(대하 30: 6)는 의미로도 이 슈브가 사용되고 있다.

신명기 역사서처럼 역대기 역사서 또한 슈브를 사용할 때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왕이나 백성이 야웨께 악을 행하고 예언자의 말에 회개하지도, 돌아오지도 않는다(대하 36: 13; 느 9: 35). 또한 히스기야 왕 통치시기에 보발꾼들(מַשְׁכֵּי צִדִּיק)이 몰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브할 것을 간곡히 권유한다(대하 30: 6; 비교, 숙 1: 3-4).

[...] בְּנֵי יִשְׂרָאֵל שׁוּבוּ אֶל־יְהוָה אֱלֹהֵי אֲבוֹתֵיכֶם וְזָמַק וַיִּשְׁדָּאֵל
וְיָשָׁב אֶל־הַפְּלִיטָה הַנִּשְׁאַרְתָּ לָכֶם מִכַּף מַלְכֵי אַשּׁוּר
“[...]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앳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나 이러한 권유가 북왕국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거부당하고, 조롱당하며, 일부 사람들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예배 장소로서 예루살렘으로의 초대에 응하게 된다(대하 30: 8, 11; 비교, 렘 41: 5). 이전의 북왕국은 야웨의 불같은 진노를 돌이키는 것을 거부했으며(대하 30: 8), 현재의 북왕국 지역 사람들 역시 야웨께 돌아오면 흩어진 포로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대하 30: 9)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에서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슈브의

27)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역대기냐? ‘역대기 역사서냐?’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다를 주제가 아니기에 편의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를 이해하는 ‘역대기 역사서’로 표현하도록 한다.
28) 역대기 역사서에서 히브리어 슈브는 전체 91회 사용되고 있고, 야웨께로 돌아옴과 야웨를 떠남이라는 두 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참고, J. A. Soggin, *윗글*, 885쪽.

사용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알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²⁹⁾

역대기 역사서는 또한 이전의 예언자적 전승을 수용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백성을 경고하고, 훈계하는 예언자로 이해하고 있다. 야웨께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예언자들을 보냈고(대하 24: 19a),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경고했으나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대하 24: 19b).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 또한 이런 관점으로 묘사되고 있다.³⁰⁾ 예언자들의 경고의 목적은 백성이 야웨께 돌아오는 것이었다(느 9: 26). 야웨는 백성들을 살리는 율법(torah)과 계명(commands)과 규례(judgements)를 주었지만 백성들은 그것들을 거역하여 죄를 범했다(느 9: 29). 결국 느헤미야서는 예언자들을 율법의 선포자로서 재해석하고 있다.³¹⁾

역대기 사가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그대로 인용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대하 6: 24-25; 비교, 왕상 8: 33-34). 또한 축복의 회복(대하 6: 26-27; 비교, 왕상 8: 35-36)과 죄의 용서도 역대기 사가에 의해 다시 반복된다(대하 6: 36-39; 비교, 왕상 8: 46-50). 그러나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는 달리 역대기 사가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야웨의 응답을 추가하고 있다(대하 7: 13-15).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נָשָׁוּ בַּעֲשָׂוֹתָם)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야웨의 얼굴을 구하면 야웨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한다(14절). 이 본문은 역대기 사가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얻게 되는 야웨의 용서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³²⁾ 야웨를 떠나면 심판이지만(대하 7: 19), 그러나 야웨께 돌아오면 용서와 구원이 선포

된다(느 1: 8-9). 결국 에스라서의 귀환자 명단을 통해 야웨의 용서와 구원이 실현됨을 보여준다(스 2: 1 이하).

3) 예언서에서 회심

볼프(H. W. Wolff)에 의하면 구약성서 예언서에서 회심의 목표는 “본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야웨와 본래적 관계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³³⁾ 포러(G. Fohrer)는 회심이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³⁴⁾ 슈브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이해(‘본래 상태로의 회복’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왕하 22-23장에 나오는 요시아 개혁에서 요시아는 개혁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감)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지만, 동시에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작(죄악된 과거와 단절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옛 언약들을 파기하였으나 개혁을 통해 언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⁵⁾

(1) 포로 이전 예언서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는 백성의 회심을 위한 전문용어로서 슈브를 사용한다.³⁶⁾ 암 4장 6-11절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굶주림(6절), 가뭄(7-8절), 농사 재앙(9절), 역

29) A. Graupner, art. תשובה(ThWAT VII), (Stuttgart: Kohlhammer, 1993), 1158쪽.

30) A. H. J. Gunneweg, *Nehemia* (KAT XIX/2), (Gütersloh: Gerd Mohn, 1987), 129쪽. 군네벡은 느 9장에 나타난 회회적인 관점의 본문을 역대기 사가 이후의 교정으로 보고 있다.

31) A. Graupner, 윗글, 1158쪽.

32) 윗글.

33) H. W. Wolff, “Das Thema ‘Umkehr’ in der alttestamentlichen Prophetie,”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48 (1951), 129-148쪽.

34) G. Fohrer, “Umkehr und Erlösung beim Propheten Hosea,”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1 (1955), 161-185쪽.

35) J. A. Soggin, 윗글, 888-889쪽.

36) 예언자 아모스 이래로 예언과 지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지혜의 말들은 예언자가 자신의 선포 가운데 사용하며(암 6: 12; 사 5: 21; 31: 2), 또한 예언자적 죄에 대한 고발과 재앙에 대한 선포를 잠언에서 말하고 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נָשָׁוּ בַּעֲשָׂוֹתָם) 타슈부”(잠 1: 23a; 참고, 잠 1: 24-31). 예언자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고, 잠언의 지혜는 예언자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잠언에서 지혜는 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권유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적인 의도로 쓰이는데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어 슈브가 사용되고 있다. O. Pfleger, *Sprüche Salomos (Proverbia)* (BK XV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20쪽; 비교, H. Ringgren, *Sprüche* (ATD XVI/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16-17쪽.

병과 전쟁(10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재앙(11절)을 내리실 것을 결정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נָשׁוּב) 슈브) 아니하였느니라”(6, 8, 9, 10, 11절)라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나온다. 즉, 아모스는 야웨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선포한다. 또한 주전 8세기 예언자 호세아는 결혼 은유(metaphor)를 통해 회심 사상을 고조시키고 있다. 호세아서에는 야웨가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נָשׁוּב) 레슈브)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야웨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호 5: 4). 그러나 호세아는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야웨께 돌아가자(נָשׁוּב) 나슈바)고 제안한다(호 6: 1).³⁷⁾ ‘야웨께 돌아가자’는 표현이 예언자의 회개 촉구를 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심을 전제한 것인지 여전히 논쟁 중에 있지만 예언자 호세아는 슈브를 통해 하나님께로 회귀를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도 이 슈브 사상이 잘 드러난다. 사 30장 15절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야웨께서 “너희가 돌이켜(נָשׁוּב) 베슈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김 회권은 이 본문의 ‘돌이키다’는 표현은 유다로 하여금 군사적 동맹외교를 통해 전쟁 준비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돌이킴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³⁸⁾ 그러나 이 ‘돌이킴’에는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39: 1-4), 애굽-에티오피아(30: 6-7)와 군사적 동맹을 그칠 것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구약의 ‘슈브’ 사상에 익숙해 있던 예언자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이름 또한 스알야슥(נְשׁוּבָה)이라 이름 짓는다(스알야슥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 올 것이다’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심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갖고 선포했던 예언자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슈브 사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촉구의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전 8세기

37) 알트(A. Alt), 슈미트(H. Schmidt), 린드블롬(J. Lindblom)은 호 6장 1절을 이스라엘의 회심으로 생각하지만, 볼프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 회개 촉구로써 이해한다. 참고, H. W. Wolff, *Hosea* (BKAT XI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31976), 148-149쪽.

38) 김 회권, 「이사야」 (대한기독교서회 창립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580-581쪽.

예언자의 회심 사상이 유다 왕조 말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연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다.

주전 7세기 예언자 예레미야는 특별히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 관계로 묘사하면서 슈브를 사용한다. 렘 3장 1절에서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이전 남편이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일것인가? 묻는다. 대답은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한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의 통찰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본래 회개할 능력이 없다. “주 야웨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렘 2: 22, 30; 6: 10; 참조, 호 5: 4, 6; 11: 5). 예레미야에 의하면 흑인인 에피오피아 사람이 그들의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그 가죽의 반점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사람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킬 수 없어서(렘 13: 23) 죄악된 인간 자체는 원래 절망적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회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회개가 가능할까? 여기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회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³⁹⁾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다(“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נָשׁוּב) 슈바) 나의 노한 얼굴을 너 회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렘 3: 15)).⁴⁰⁾ 이러한 예레미야의 슈브 사상이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에게서 전개한다.

(2) 포로기와 포로 이후 예언서

겔 34장 이후는 이스라엘의 회복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34-39장: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 40-48장: 하나님의 영광의 구현인 성전의 회복).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겔 34장 24절에 언약 공식문구가 나타난다(“나 야웨는 그들의 하나님

39) 차 준희, 「예레미야서 다시보기」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49-50쪽.

40) 예레미야의 슈브에 대한 선포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본문에서 나타난다(렘 3: 12, 14, 22; 8: 4-5; 15: 19 등).

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의 왕이 되리라 나 야웨의 말이니라”). 겔 34장 24 절은 마치 시내산 언약(출 19장)과 다윗 언약(삼하 7장)을 상기시키는 듯하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참고, 암 9: 11) 이스라엘 중에 다윗(후손)을 왕으로 삼겠다는 선포다. 에스겔은 이 언약을 ‘평화의 언약’ (עֲוֹן וְשָׁלוֹם 베리트 샬롬)이라고 부르며(겔 34: 25),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은 열국 중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겔 36: 24) ‘맑은 물’, 곧 성령으로 뿌려 정결케 하고(겔 36: 25), 새 영(רוּחַ נְכוּן 루아흐 하다사)과 새 마음(לֵב נָכוֹן 레브 하다쉬)을 주어 이스라엘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 하고 부드럽게 하여(겔 36: 26)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겔 36: 27).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 공식문구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 보도(겔 37장) 말미에 다시 반복된다(“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전)를 세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겔 37: 26-27). 이러한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선포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의 결과다(신 7: 8).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겔 39장 27절에 야웨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עֲוֹן יִשְׂרָאֵל אֲתָם בְּשׁוֹבְבֵי אֶרֶץ מִן הָאֲמִיּוֹת).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인 구원행위의 결과로 오게 되는 회심을 말한다. 에스겔서의 회심 사상을 잘 대변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의 슈브 사상이 포로 이후⁴¹⁾ 예언자 스가라에게 이어졌다. 스가라서에는 이 슈브가 아주 독특한 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슈브는 회심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A), 둘째는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다(C).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41) 포로 이후 예언자인 학개와 말라기에는 ‘슈브’ 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으로 먼저 돌아가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셨을 때도 슈브가 사용된다(B). 속 1장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A: 3a, 4 절). 만약 이스라엘이 돌아오면(A) 야웨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실 것(B: 3b, 16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야웨께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기다려도 이스라엘이 야웨께 돌아오지 않자 기다림에 지친 야웨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B: 속 8: 3).

אֲנִי אֶלְבָּשׁ אֶתְכֶם בְּעֹרֹת יְרֵמְיָהוּ וְאַתֶּם תֵּלְכוּ אֶתְכֶם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야웨께서 먼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 후(B), 다시 이스라엘에게 요새(יְרֵמְיָהוּ 레미차론)⁴²⁾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신다(A: 속 9: 12). 야웨께서는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신다.⁴³⁾ 야웨께서 이들을 위해 배나 갓아 주시겠다는 것이다. 야웨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회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별 반응이 없다. 그러자 긍휼이 크신 야웨께서 이스라엘이 야웨께 돌아오도록 임의로 계획을 세우신다(C).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חֲסִדִּי בְּיָמֵי הַחֲסִדִּים 호쉬보탐; 슈브의 히필형, 속 10: 6),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חֲסִדִּי בְּיָמֵי הַחֲסִדִּים 하쉬보탐; 슈브의 히필형, 속 10: 10). 스가라서는 끝까지 회심하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히브리어 슈브의 히필 형태로 끝맺는다.

구약성서 예언서에는 예언자의 입을 통해 회개촉구의 관점에서 그리고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는 관점에서 히브리어 슈브가 사용되고 있다.

42) ‘요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43) 유 윤중, 『학개/스가라/말라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03-304쪽.

4. 결론

구약성서에서 '회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히브리어 슈브는 구약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그러나 특별히 신명기와 역사서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의 '회심'(하나님께 돌이킴)에 강한 어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 신명기에서는 포로 이전 예언자들의 신학적 사상을 수용하여 포로민들을 겨냥한 미래적 선포 형식으로 쓰이고 있으며,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회심치 않음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히브리어 슈브를 사용하고 있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유일한 슈브는 요시아 왕이었다(왕하 23: 25). 역대기 역사서에서도 히브리어 슈브 사용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죄를 알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포로 이전 예언서에서는 히브리어 슈브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축구의 상황에서 나타나며, 포로기와 포로 이후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강제적 구원의 행위 결과로써 히브리어 슈브가 사용되고 있다.

5. 참고문헌

김 회권, 「이사야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M. 로이드 존스,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 - 교리강좌 시리즈 2」(임 범진 옮김)(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H. W. 볼프, 「구약성서중심사상」(문 회석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유 윤종, 「학개/스가라/말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이 은우,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67-86쪽.
차 준희, 「예레미야서 다시보기」(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R. E. 프리드만,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이 사야 옮김)(서울: 한들출판사, 2010).
한 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0-30쪽.
Dietrich, E. K., *Die Umkehr (Bekehrung und Busse) im Alten Testament und im Judentum bei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neutestamentlichen Zeit*, (Stuttgart: Kohlhammer, 1936).
Fabry, H.-J., art. **שׁוּב**(ThWAT VII), (Stuttgart: Kohlhammer, 1993), 1118-1139쪽.
Fohrer, G., "Umkehr und Erlösung beim Propheten Hosea,"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1 (1955), 161-185쪽.
Graupner, A., art. **שׁוּב**(ThWAT VII), (Stuttgart: Kohlhammer, 1993), 1140-1166쪽.
Gunneweg, A. H. J., *Nehemia* (KAT XIX/2), (Gtersloh: Gerd Mohn, 1987).
Holladay, W. L., *The Root šûbh in the Old Testa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Usages in Covenantal Contexts*, (Leiden: Brill, 1958).
Knapp, D., *Deuteronomium 4: Literarische Analyse und theologische Interpretation* (GTA 3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57).
Plöger, O., *Sprüche Salomos* (Proverbia) (BK XV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Ringgren, H., *Sprüche* (ATD XVI/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Rütterswörden, U., *Das Buch Deuteronomium*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Schmidt, W. H., "Suchet den Herrn, so werdet ihr leben," Exegetische Notizen zum Thema 'Gott suchen' in der Prophetie," *Ex orbe religionum*; FS. G. Widengren,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Numen Sup 21-22*, (Leiden: Brill, 1972), 127-140쪽.
Soggin, J. A., art. **שׁוּב**(THAT I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4), 884-891쪽.
Veijola, T.,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1-16,17* (ATD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Wahl, H. M., *Der gerechte Schöpfer: Eine redakt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r Elihu-Reden - Hiob 32-37* (BZAW 207), (Berlin: de Gruyter, 1993).
Wolff, H. W., *Hosea* (BKAT XI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_____, "Das Thema 'Umkehr' in der alttestamentlichen Prophetie,"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48 (1951), 129-148쪽.
Zobel, K., *Prophetie und Deuteronomium: Die Rezeption prophetischer Theologie durch das Deuteronomium* (BZAW 199), (Berlin: de Gruyter, 1992).

검색어

회심

슈브

신명기 4:29-31

신명기 30:1-10

강제적 구원

“And thou dost turn back, and hast hearkened to the voice of Jehovah”(Deut 30:8) -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Israel in the Old Testament

Hyeong-Geun So,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 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onversion’ in the Old Testament by analyzing the biblical texts which refer to the hebrew *shubh*. Especially the hebrew word *shubh* often appears in Deuteronomy, Historical Books and Prophetic Writings of the Old Testament in the context of demanding the conversion of Israel(‘come back to God’). Deuteronomy(4:29-31; 30:1-10), which receives the prophetic *shubh* understanding of the pre-exilic prophets, uses it as the future proclamation for the exilic Jews.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he hebrew *shubh* is used chiefly in order to declare the non-conversion of Israel, and according to Dtr. H., only king Josiah is converted to God(2 Kings 23:25).

The hebrew *shubh* in the Chronicler’s History is not to intend the conversion of Israel, but to reveal the sin of Israel. In the pre-exilic Prophets the hebrew *shubh* appears as the demand of the repentance, and in the exilic and post-exilic Prophets the hebrew *shubh* is used mainly as the result of the coercive salvation of Go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Korean churches and ministers that the conversion in the Old Testament does not depend on human effort, but only the sympathy and grace of God.

Key Words

Conversion

Shubh

Deut 4:29-31

Deut 30:1-10

Coercive salvation

- 투고일: 2011년 10월 1일
- 심사일: 2011년 10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6일

www.kci.go.kr